

지역 매아리

정읍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적극 나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곡물가격 상승과 수입개방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2019년 조사료 동계 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조사료를 생산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영체(연결체는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료작물은 매년 동·하계 두 차례에 걸쳐 생산되고 있으며, 동계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등의 작물을, 하계에는 옥수수, 수타그라스, 총채 벼 등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조사료 면적은 전년보다 800ha 증가한 4,700ha에서 98,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축산 농가와 TMR사료공장 등에 보급했다. 이는 금년 유례없는 폭염과 수확기의 잦은 강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온 힘을 다한 생산농가와 경영체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사고다발 발생지역 '교차로 알림이' 설치

부안군은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다발 발생지역의 비신호 교차로에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했다.

부안군은 이번에 비신호 교차로 및 생활권 이면도로 가운데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았던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차로 알림이 설치지역을 검토했으며 보건소 사거리의 교차로 2개소에 교차로 알림이를 시범 설치했다. 교차로 알림이는 교차로 도로면 중앙에 매설해 주간에는 LED 램프가 황색 점멸해 교차로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야간에는 내장된 차량감지센서로 차량의 전조등을 감지해 LED 램프의 적색 점멸을 통해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주의 및 경각심을 줌으로써 차량 안전운행과 보행자 안전통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특히 교차로 알림이는 간단한 구성으로 유지관리가 쉽고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원공급을 채택해 친환경적이다.

부안군은 향후 설치지역의 설치효과 및 운영상황을 분석해 교차로 알림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브랜드 지식농업 활성화 '앞장'

고창군, 전국 브랜드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 · 다섯꺼리 아카데미 중강

고창군에서 '제2회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과 다섯꺼리 중강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7일 상하농원에서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과 전북대학교 LINC+ 사업단 공동주관으로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 전국의 농업인, 다섯꺼리 아카데미 교육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는 ▲B·I&패키지 디자인 부문 ▲마케팅아이디어 부문 ▲청년농업인 3개 부문에 21명의 지식농업인 선발 시상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권택은 과장의 특강, 제1회 지식농업인 대상 수상자인 장수군의 '한비전' 및 2회 대상 수상자의 사례 발표, 브랜드 홍보전시, 지식농업인과 함께하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은 전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브랜드 홍보의 기회를 마련해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최되고 있다.

이번 지식농업 페스티벌은 27개 시군에서 111여명이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 부문에 최종 21명의 지식농업인이 선발되었고 이날 PPT 발표심사를 거쳐 상훈이 정해졌다.

지식농업인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성,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성, 발전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으며, 고창군은 이들 지식인들의 다양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농업현장에 접목시켜 농업 부가가치 증대에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농업 부가가치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 2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 다섯꺼리 아카데미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까리별 전문교수를 지정한 심화교육을 추진했으며 총 4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유기상 군수는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 및 다섯꺼리 교육을 통해서 농촌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농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과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전하제일 농생명 문화도시 한반도 첫수도 고창으로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최근 박마루 복지TV대표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마루 복지TV대표 정읍시 명예시민패 수여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박마루 복지TV대표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 정읍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정읍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정읍시 명예시민패는 정읍시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국내인에게 수여하여 정읍 명예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지역·기관 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시·군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 대표는 희

망에 노력하는 사람들(대표 문성하)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의 홍보대사로 지난 7년간 활동하며 정읍지역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꿈과 끼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 공연 행사 홍보 및 발전에 기여했다. 명예시민패를 접수한 김민태 정읍시 부시장은 "그동안 장애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발전에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리

며, 앞으로 정읍시의 명예 시민으로서 지역 홍보와 문화예술 교류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표는, 방송인이지가 수로서 '박마루의 뉴 공감세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각종 저술과 음반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면, '계화미' 옛 명성 되찾는다

유채쌀 브랜드화 통한 명성 회복

부안군 계화면이 간척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 경관단지를 조성해 계화쌀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계화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간척지 2,800여ha의 논에 1,200ha의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유채지 파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하는 유채경관단지는 전라북도 경관단지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대규모로 꽃이 피는 내년 4월 하순에 유채 경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채 경관단지 조성은 유채꽃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해 관광상품화하고 유채를 녹비작물로 활용해 벼를 재배해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줄임으로써 생산비를 줄이고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 맛좋은 쌀을 생산해 계화쌀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다.

계화면은 유채파종 농가를 중심으로 경관단지 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



를 중심으로 유채 경관단지를 활용한 유채쌀을 생산, 브랜드화 하는 작업도 진행해 계화쌀의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계화농협, 경관단지협의회, 벼짓축적위원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계화 유채쌀축제 그리고 벼짓이야기'라는 행사명으로 농경문화축제를 개최해 유채를 활용한 계화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 복분자주 온라인시장서도 인기만점'

배상면주가 고창LB, e-마케팅 페어 우수 농식품부문 대상 수상

고창 복분자주의 온라인 홍보·판매가 돋보인다.

배상면주가 고창LB(주)(대표 안재식)는 최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시상식'에서 우수 농식품부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e마케팅페어는 올해로 10년째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판매 박람회로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업계 1위 업체인 (주)이베코리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279개 업체가 G마켓과 옥션에서 상품을 판매해 총 100억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중 지역활성화와 온라인 판매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전국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배상면주가 고창LB'는 우수한 품질의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복분자주로 그 명성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배상면주가 고창LB는 맛이 부드러운 복분자주인 '복분자', 복분자주에 탄산을 가미하여 여성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은 '빙탄복'을 생산하고,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는 '린마'를 막걸리, 고창 아라소주 등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공략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기업현장 방문 지속 추진

유기상 고창군수가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복분자 농공(특화)단지를 방문했다.

복분자 특화단지는 부안면 용산리 일대에 19만6,358㎡ 규모로 조성된 식품 특화단지다.

11월 현재까지 맥주, 농축액, 수산물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음료, 육류가공식품 등 9개 기업이 공장 가동 중이며, 약 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6개 기업이 추가 입주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메카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이날 올해 신규로 입주하

여 과제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내추럴코어와 웰러바이오, 수산물과 육류 가공을 하는 참바다 그리고 고창군 황토에서 자란 고구마를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고창고구마가공식품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근로자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한편, 군은 지난 달 흥덕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농공단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입주기업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84-8960  
www.gangsanwine.com